事業活動

物質特許制度 導入留保 建議

新製品 獨自開發·評價時까지

本會는 지난 3月 7日 大韓藥品工業協會 및 韓國遺傳工學硏究組合과 共同으로 經濟企劃院·商工部·特許廳·國會등 10個 關係機關에 物質特許制度 導入 留保를 要請하는 建議書를 提出했다.

本會등 3個 團體는 이 建議書에서 『最近 先進工業國의 輸入規制强化와 後發 開發途上國의 競爭參與등 어려운 國際環境下에서 일부 先進工業國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工業所有權制度를 先進國形態로 전환하여 物質特許制度를 採擇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技術蓄積이 아직 微弱한 우리의 現實情을 度外視하고 自國의 利益만을 앞세운 不合理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同 制度의 導入時 利害得失이 가장 큰 當業界는 ▲特許制度의 比較分析 ▲製藥産業의 國際競爭力 比較 ▲物質特許의 問題點 檢討 ▲各國의 特許政策動向등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본 結果 우리産業의 技術水準을 持續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特許法 目的에도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現行 製造方法特許制度를 계속 운영하여 우리가 獨自的으로 新物質을 開發, 評價할 수 있는 時點까지는 物質特許制度 導入을 留保하여 우리 産業과 經濟가 先進國의 特許獨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本會등 3個 團體는 또 本會와 大韓藥品工業協會가 共同製作한 「物質特許와 製藥産業」이란 册子를 添附, 向後 政策에 적극 反映 措置하여 줄것도 함께 建議했다.

第53回 工業所有權 硏修課程 座(中級)盛了

明細書 作成方法 및 審査基準등 講義

本會는 지난 3月 20日부터 23日까지 4일간 特許廳 硏修室에서 第53回 工業所有權 硏修講座(中級)를 實施했다.

이번 硏修에서는 工業所有權 出願에 있어 가장 重要한 明細書 作成方法과 審査의 基準이 되는 發明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의 判斷등을 中心으로 工業所有權 全般에 걸친 講義가 있었다.

講義日程 및 主題는 다음과 같았다.

◉ 日程 및 講義主題 ◉

日字	時間	講義主題	講師
3月 20日(水)	13:30~17:30	特許明細書 作成方法	金永吉 (辨理士)
3月 21日(木)	13:30~17:30	發明의 成立性 判斷基準	李瑨雨 (特許廳金屬審査擔當官)
3月 22日(金)	13:30~17:30	發明의 新規性 判斷基準	尹汝範 (特許廳審査調整課長)
3月 23日(土)	09:30~12:30	發明의 進步性 判斷基準	黃兌淸 (特許廳抗告審判官)